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하리라”
기독 전문인들, “복음으로 세상 바꾸다”**



중앙아시아에서 젊은 기독 전문인들이 직업과 삶의 현장에서 복음을 전하고 사회를 변화시키기 위해 일어서고 있다고 CBN뉴스가 보도했다. 최근 카자흐스탄 알마티에서 ‘기독 전문인 포럼’에 카자흐스탄을 비롯,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우즈베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등 중앙아시아 각국에서 500여 명의 젊은 기독 전문인들이 모였다.

포럼에는 교사, 의사, 변호사, 엔지니어, 영화제작자, 기업인 등 다양한 직업군이 참여했다. 영화 제작자인 마이라 카르사바예바는 “기독교인은 약할 거라는 편견이 있지만, 나는 매우 용감하다”며 “이 포럼을 통해 신양인으로서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방법을 함께 배우고 싶다”고 말했다.

행사를 주최한 미션 유라시아(Mission Eurasia) 대표 세르게이 라쿠바는 10년 전, 복음을 전하는 데 주저하지 않는 담대하고 신실한 지도자 세대를 세우겠다는 사명으로 이 포럼을 시작했다. 라쿠바는 “우리는 이들이 직장과 사회에서 복음을 전하는 강단(講壇) 역할을 하길 바란다. 신앙을 삶의 중심에 두고 영향력 있는 지도자로 성장하도록 돋고 있다”고 밝혔다.

중앙아시아의 기독교인 페리자트 시파타이는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고, 그들은 복음과 구원, 희망에 대해 듣고 싶어 한다는 것을 보고 있다”고 전했다. 키르기스스탄 복음주의연합의 콘스탄틴 크라브초프는 “자유가 줄어들수록 교회는 더 연합하고 기도하며, 더 진실하게 그리스도를 따르게 된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이 얼마나 큰 대가를 요구하는지 깨닫게 된다”고 말했다.

이번 포럼은 단순한 직업 교육을 넘어, 종교적 자유가 억압받는 현실을 직면하고 있는 참가자들에게 전략과 공동체를 제공했다. 종교 탄압이 강화되는 국가에서 온 참가자들도 있었으며, 이들은 박해 가운데서 서로의 경험과 지혜를 나누며 연대했다.

라쿠바는 “오늘날 포스트 소련 지역에는 문화적 이슬람 압력이 존재한다”며 “우리는 이 젊은이들이 신앙 안에서 더욱 강해져서 박해 속에서도 그 영향력을 현대 사회로 담대히 가져갈 수 있도록 돋고자 한다”고 말했다. 또한 이번 행사에서는 중앙아시아 미전도 종족을 위한 전략적 접근 방안도 논의됐다.

카자흐스탄의 복음화율은 불과 0.5%에 불과하며, 타지키스탄과 투르크메니스탄은 0.01%에 거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젊은 세대는 신앙을 실천하기 위한 창의적인 방법을 찾아내고 있다. 라쿠바는 “다음세대가 믿음의 횃불을 들고 전진할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해달라”고 부탁했다(출처: 복음기도신문 종합).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 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마태복음 5:14-15)

하나님, 세상 가운데 복음의 빛을 비추며, 주를 따르고자 하는 중앙아시아의 형제자매들을 위해 간구합니다. 감출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진 이들을 통해 복음이 영화롭게 되고, 목마른 영혼들이 빛 되신 주께로 나아오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억압받는 이들의 믿음을 굳게 불들어 주사 성령께서 친히 복음을 살아내며 전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게 하소서. 순종하는 교회들을 통해 중앙아시아와 열방 가운데 놀라운 일을 행하실 주님만 기대합니다.

한주간 긴급기도 [소그룹1]

▲ ‘석유부국’ 기대 부푼 수리남, 첫 여성 대통령 선출…16일 취임

남미 수리남에서 1975년 독립 이후 50년 만에 처음으로 여성 대통령이 선출됐다. 수리남 국회는 6일(현지시간) 특별 본회 의를 열어 예니퍼 헤이링스 시몬스(71) 국민민주당(NDP) 대표를 5년 임기의 차기 대통령으로 선출했다고 밝혔다. 수리남은 의회 간선제로 대통령을 뽑는다. 국회의원 51명 중 3분의 2(34명) 이상의 선택을 받으면 대통령직에 오른다. 시몬스 대통령 당선인의 국민민주당은 앞서 지난 5월 선거(선거구별 비례대표제)에서 18석을 차지해 5년 전 중도좌파 성향 진보개혁당(VHP)에 내줬던 원내 1당 지위를 되찾은 뒤 국회에 진출한 다른 5개당과의 연립정부 구성을 통해 34석을 확보했다. 시몬스 당선인은 이날 “제가 가진 모든 지식과 힘을 동원해 우리가 가진 자원을 적극 활용할 것”이라고 약속한 뒤 “어떤 직위든, 어떤 정당이든, 어디에 속한 구성원이든 국가를 위한 기여는 무의미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찬드리카퍼사드 산토끼(66) 대통령은 시몬스 대통령 후보의 당선을 축하하며 “새 정부가 국민 신뢰 속에서 비판을 경청하고 수용하면서 열린 마음으로 통치해 주시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고 수리남 국회는 덧붙였다. 취임식은 열흘 뒤인 오는 16일로 예정됐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지혜의 훈계라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잠언 15:33)

하나님, 풍부한 천연자원을 가진 나라이지만 오랜 독재와 구조적 부정부패로 인해 정치적,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수리남에 세워주신 새로운 지도자를 주께 의탁드립니다. 시몬스 당선자에게 선한 양심을 주셔서 진실과 공의로 국민들을 섬기게 하시고 모든 위정자와 백성들에게 십자가 복음을 계시하여 주사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를 주옵소서. 그 지혜의 훈계를 받는 자마다 믿음으로 인한 주님의 구원이 임하게 하시며 여호와를 경외하는 수리남 교회를 통해 진리를 가르치사 그들의 영혼이 기쁨으로 충만케 하소서.

▲ 콜롬비아, 정글 집단묘지서 실종 복음주의자 8명 시신 발견

콜롬비아 당국은 과비아레 정글 지역 집단 묘지에서 발견된 시신 8구가 지난 4월 실종된 복음주의 기독교인들이라고 공식 확인했다. 피해자들은 콜롬비아의 복음주의 연합체 소속 기독교 평의회 구성원들로, 콜롬비아의 옛 좌익 반군 조직인 콜롬비아무장혁명군(FARC)의 이탈세력에 의해 납치된 뒤, 또 다른 좌익 반군 조직인 국가해방군(ELN)과 협력하고 있다는 근거 없는 의심 아래 처형됐다. 국제적십자위원회의 중재 아래 시신은 DNA로 신원 확인됐다. 사건이 발생한 칼라마르 지역은 FARC 이탈세력인 ‘아르만도 리오스 전선’의 통제 하에 있으며, 주민들은 외출 시간 제한 등 사실상의 계엄 상태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 목회자는 “오후 6시 이후에는 외출할 수 없고, 예배도 더 일찍 드려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생명이 위험하다”고 말했다. 복음주의 연합회는 “기독교 지도자들에 대한 비열한 살해”라며 강력히 규탄했다. 오픈도어 선교회는 “게릴라 조직은 마약 카르텔과 연계돼 있으며, 기독교인을 적대시하고 자주 공격한다”며 “기독교 지도자들은 청소년에게 영향력 있는 존재로 간주돼 특히 큰 위협에 노출돼 있다”고 밝혔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마태복음 16:16-18)

하나님, 근거 없는 혐의를 씌운 무장 조직들에 의해 순교를 당한 주님의 사람들을 통해 이 땅에 심긴 복음의 씨앗이 콜롬비아에 풍성한 열매로 맺게 될 그날을 소망합니다. 서로 다른 세력 간의 권력 다툼과 반기독교 정서로 인해 기독교인들을 통제하고 반복적으로 공격하는 조직들의 악행을 엄히 꾸짖으시고 주님의 백성들을 보호하여 주소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를 믿고 고백하는 교회들을 흔들리지 않는 반석 위에 견고히 세워주십시오. 그래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예수 교회로 승리케 하옵소서.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기독 어머니, 코로나 이후 홈스쿨링…당국, 양육권 박탈 경고하며 법적 공방



브라질에서 한 기독교인 어머니가 10대 자녀를 집에서 홈스쿨로 교육한다는 이유로 기소돼, 법정 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당초 7월 1일 산타카타리나주 최고법원에서 구두변론이 열릴 예정이었으나 연기된 이 사건은 브라질에서 부모의 교육권과 종교 자유를 둘러싼 중요한 판례가 될 것으로 여겨져, 주목받고 있다고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가 보도했다.

CP에 따르면, 해지아니 시세레루라는 기독 여성은 2020년 코로나19로 공립학교가 폐쇄되자 당시 12세였던 아들을 집에서 교육하기 시작했으며, 2021년 대면 수업이 재개된 이후에도 홈스쿨링을 이어갔다.

그녀는 “홈스쿨링이 아들에게 가장 적합하다며, 가능한 최고의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헌신하고 있다”며 “홈스쿨링을 통해 우리 가족에게 매우 중요한 믿음과 가치를 매일 아들에게 전할 수 있다. 이러한 가치들은 브라질의 공립학교에서 지속적으로 도전받고 훼손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의무교육 등록제를 시행하고 있는 브라질 지역 당국은 시세레루에게 300달러의 벌금을 부과하고 하루 20달러의 추가 벌금(최대 1,200달러)을 경고했으며, 등록 요건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양육권을 박탈할 수 있다고 밝혔다.

법률 옹호 단체인 ADF인터내셔널은 그녀의 법적 방어를 지원하며 “국제 인권법은 부모가 자녀 교육을 선택할 권리를 보장한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세계인권선언 제26조와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3조는 부모가 신념에 따라 자녀의 교육 방식을 선택할 권리를 명시하고 있다.

브라질 대법원은 2018년 홈스쿨링이 위헌은 아니라고 판단했지만, 홈스쿨링을 규제할 구체적인 입법이 필요하다는 점도 함께 덧붙였다. 현재 브라질에서는 약 7만 명의 아동이 홈스쿨링을 받고 있으나, 관련 법이 마련되지 않아 법적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다.

시세레루는 “나는 어머니로서 아들에게 가능한 최고의 교육을 제공할 책임이 있지만, 국가가 나에게 처벌을 가하기로 한 결정은 이 책임을 다하는 데 어려움을 주고 있다. 하지만 이번 심리에서 부모가 자녀의 교육을 지도할 권리를 인정하는 판결을 희망한다. 브라질의 어떤 부모도 가족에게 최선의 선택을 했다는 이유로 벌금이나 자녀 양육권 상실의 위험을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출처: 복음기도신문 종합).

패역한 자의 길에는 가시와 올무가 있거니와 영혼을 지키는 자는 이를 멀리 하느니라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잠언 22:5-6)

하나님, 자녀에게 성경적 가치관과 믿음을 가르치기 위해 홈스쿨을 선택한 기독교 부모에게 양육권 박탈을 경고해 법정 공방을 벌이고 있는 사건을 주께 익탁 드립니다. 공교육에 젠더 이데올로기를 도입하며 기독교적 가치를 억제하는 룰라 정권을 꾸짖어 주시고 그의 영향력이 이 일에 미치지 않도록 주님의 공의로 다스려 주옵소서. 브라질 교회가 주의 강한 손을 의지하여 이 영적 전쟁에 깨어 간구하게 하소서. 또한 믿음의 길을 택한 부모들이 말씀과 기도로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힘써 가르쳐 주님의 의를 나타내는 거룩한 세대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한주간 긴급기도 [소그룹2]

▲ 카자흐, 공공장소서 얼굴 가리는 복장 금지…테러 방지 목적

카자흐스탄 정부가 공공장소에서 얼굴을 가리는 복장을 전면 금지하는 법안을 제정하면서 테러 방지 목적으로 이슬람 복장을 제한한 다른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움직임에 동참했다. 1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카심-조마르트 토카예프 카자흐스탄 대통령은 전날 얼굴 인식을 방해하는 복장을 공공장소에서 착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에 서명했다. 또 의료 목적으로 공공장소에서 얼굴을 가리는 경우를 비롯해 악천후와 스포츠·문화 행사 때는 법안 적용을 하지 않기로 했다. 앞서 토카예프 대통령은 이번 법안이 민족 정체성을 강조하는 계기라고 평가했다. 이슬람 문화권인 중앙아시아의 다른 국가들도 최근 몇 년 사이 얼굴 대부분을 가리는 이슬람 복장을 제한하는 추세다. 이는 얼굴이 드러나지 않는 복장 탓에 공공장소에서 신원을 확인하기 어려워 각종 테러나 범죄 위험이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키르기스스탄에서는 눈을 제외하고 온몸을 가리는 이슬람권 여성 복장인 니캅 착용을 경찰이 단속하고 있으며, 우즈베키스탄도 니캅 착용 시 250달러(약 33만 원)가 넘는 벌금을 부과한다. 에모말리 라흐몬 타지키스탄 대통령도 민족 문화와 다른 복장을 공공장소에서는 착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에 서명한 바 있다.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어 그들에게 종된 것을 면하게 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내가 너희의 명예의 빛장을 부수고 너희를 바로 서서 걷게 하였느니라(레위기 26:12-13)

하나님, 테러 방지 목적으로 얼굴을 가리는 이슬람 복장을 전면 금지하는 법안을 제정한 카자흐스탄과 같은 법안을 허용한 중앙아시아 나라들을 주께 익탁드립니다. 이 일을 통해 이슬람의 명예와 닫힌 심령의 빛장을 부숴주시고 선교의 문이 열려 이 땅 영혼들이 진리의 터 위에 바로 서는 은혜의 때를 허락해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애굽의 종 되었던 이스라엘을 주의 능력으로 면하게 하신 여호와께서 카자흐에 구원의 역사를 나타내사 주가 이 땅의 하나님 되시며 이들은 주의 백성이 되는 부흥을 이뤄주소서.

▲ 가자지구, 아동 뇌막염 환자 증가

가자지구 보건당국이 8일 최근 뇌막염 환자가 발생해 “우려할 만한 수준”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고 발표했다고 뉴시스가 신화통신 등을 인용해 보도했다. 보건당국은 특히 어린이들 가운데 환자가 많아지면서 “역사상 전례가 없는 보건, 인도주의, 환경 상의 위기가 함께 닥쳤다”고 밝혔다. 가자지구의 뇌막염 어린이 환자는 의심환자와 확진자를 포함해서 모두가 급증세를 보이고 있다. 이 중 뇌막염에 가장 취약하고 중증과 합병증 등으로 악화하기 쉬운 5세 이하 어린이와 유아의 발생률이 높다. 가자지구에서는 보건 의료시스템이 대부분 붕괴하고 병원들이 파괴되거나 문을 닫았으며 비축된 의약품도 바닥이 난 상황이다. 또한 어린이용 백신도 거의 없어서 보건 당국이 방역을 위해 대응할 수 있는 긴급 대책이 제한되어 있다. 가자 보건당국은 이에 따라 현재 전쟁과 관련된 모든 당사국들에게 당장에 가자지구의 절망적인 위생상태와 보건 상황에 개입해서 파국을 막아 달라고 요청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에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셀라)(시편 46:1-3)

하나님, 고통 받는 자들의 피난처가 되시는 주께 간구하오니 전쟁으로 비롯된 가자지구의 피폐한 상황을 돌아봐 주십시오. 급증하는 뇌막염으로 위기에 놓인 아이들과 붕괴된 의료시스템으로 절망 가운데 있는 자들이 환난 중에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소서. 열방의 교회와 위정자들에게 주의 마음을 부으사 주님께 기도하며 도움의 손길로 저들을 위로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가자지구의 영혼들이 바다가 솟아나고 산이 흔들리는 것 같은 상황에서도 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않으며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사헬 한복판에서 복음과 기도로 믿음의 사람들 세우는 선교사**



아프리카에서 가장 위험한 지역 중 하나로 손꼽히는 사헬 지역에서 한 미국인 여성 선교사가 기도와 복음으로 무장, 믿음의 군대를 일으키고 있다. CBN뉴스에 따르면, 캐롤 워드(Carole Ward) 선교사는 세계 테러 관련 사망자의 절반 이상이 이곳에서 발생하며, 국제사회가 주목하는 분쟁의 중심지인 사헬 지역을 떠나지 않고 있다.

그녀는 현재 차드에 머물며 현지인을 중심으로, 선교사 훈련과 기도운동에 힘을 쏟고 있다. 과거 우간다 북부의 주의 군대(LRA) 폭력 사태와 남수단 내전 중에도 예수님이 사랑을 전하기 위해 떠나지 않았던 워드는 “이곳에서 살려면 이미 죽은 사람이어야 한다”며 “자기 자신에 대해 죽었다. 사탄은 죽은 사람을 죽일 수 없다. 생명은 이제 주님 것이기 때문”이라고 고백했다.

워드는 차드에서 지금까지 다섯 차례 선교사 훈련학교를 열었고, 이를 통해 배출된 150명 이상의 차드 현지인 선교사들이 복음을 들고 전방 지역으로 나아가고 있다. 그 중에는 테러조직 보코하람에서 회심한 이들도 있으며, 수단 난민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세례를 베푸는 사역도 진행 중이다.

대표적인 사역자 중 한 명인 디그바 카찰라(Digba Katsala)는 수도 은자메나 거리 곳곳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음향장비와 성경을 들고 다니며 거리 전도를 펼치고 있다. 프랑스어와 아랍어로 복음을 전하는 그의 설교에 많은 시민들이 귀를 기울이고 있으며, 상당수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있다. 차드는 50% 이상이 무슬림이지만 디그바는 예수님에 대해 말하는 것을 멈추지 않는다.

또 다른 선교사 압둘라예 마얀가르(Abdoulaye Mayangar)는 이전에는 독실한 무슬림으로, 아버지는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 훈련에 참여했던 인물이다. 그러나 이제 그는 복음을 들고 같은 지역을 찾아가며, 과거의 증오 대신 소망을 전하고 있다. 마얀가르는 “희망이 있다. 왜냐하면 이 나라들에 있는 무슬림들이 오늘날 복음을 들으려는 마음이 열려 있기 때문”이라며 “하나님께서 사헬에서 일하고 계신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돌아오고 있고, 그들의 삶이 변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워드는 이들을 ‘창끝’이라 부르며, 사헬의 영적 지도를 바꾸는 최전선의 사역자들이라고 말한다. 그녀는 이들과 함께 지도를 펴고, 복음을 듣지 못한 지역과 테러 발생지, 전쟁터를 표시하며 그곳으로 나아갈 준비를 한다. 워드는 “기도는 우리를 변화시키고,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지상명령을 완수할 수 있게 만든다”고 고백했다(출처: 복음기도신문 종합).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빌립보서 1:20)

하나님, 아프리카에서 가장 위험한 사헬 지역에서 복음과 기도로 순종하는 한 사람을 통해 영혼에 가장 필요한 복음을 심어 주시고 믿음의 사람들을 일으키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들의 걸음을 축복하사 이 땅을 주의 구원으로 충만케 하시고 집자가 복음으로 영혼을 변화시켜 주옵소서. 그리하여 그 생명을 받은 자들도 동일하게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만 존귀하게 되어 주님의 지상명령이 완수되기까지 멈추지 않는 행진이 계속되게 하소서. 이들이 기도하며 전진하는 곳곳마다 주의 백성들을 일으키시고, 주님의 군대가 세워지게 하옵소서.

한주간 긴급기도 [소그룹3]

▲ 중국, 유치원 ‘납중독’ 피해 아동 223명…급식에 물감 넣어

중국 서북부 간쑤성의 한 유치원에서 발생한 납중독 사건의 피해 원생이 200여 명으로 늘어났다고 연합뉴스가 중국중앙 TV(CCTV)를 인용해 8일 보도했다. 간쑤성 텐수이시의 허스페이신유치원에서 혈중 납 농도의 비정상 판정을 받은 원생이 지난 7일 오후 10시 기준 총 223명으로 집계됐다. 최근 구토나 어지럼증, 복통, 탈모, 과민반응, 흰머리, 치아 변색 등의 이상 증상을 보인 아동 20여 명이 먼저 납중독 진단을 받은 데 이어 원생 251명의 전수조사 결과 피해 아동이 대폭 늘어났다. 텐수이시 연합조사팀에 따르면, 유치원 원장과 주방 직원 등이 공모해 인터넷 쇼핑으로 물감을 구입해 급식에 사용했다. 당국은 원장을 포함한 관계자 8명을 구금했다. 문제가 된 두 식품의 납 함량은 각각 1,052mg/kg 및 1,0340mg/kg으로 나타나, 오염물 함량 기준 0.5mg/kg를 크게 초과했다. 앞서 먼저 검사받은 원생 혈중 납 농도는 20000 $\mu\text{g}/\ell$ 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중국의 어린이 기준 정상 혈중 납 농도는 100 $\mu\text{g}/\ell$ 이하다.

그들의 눈 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 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로마서 3:18,23-24)

하나님, 물감을 넣은 급식을 먹고 많은 아동이 납중독이 되어 고통받고 있는 기가 막힌 사건 앞에, 두려움 없이 악한 일을 도모하는 죄인의 실상을 보며 애통함으로 주께 나아갑니다. 속히 어린이들을 치료해 주시고, 이 일을 공모한 이들이 두렵고 떨림으로 회개하게 하소서. 이들 모두에게 복음을 들려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린 죄인을 위해 완전한 심판과 구원을 이루신 예수 안에 있는 은혜로 새롭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회복된 하나님의 자녀로 양육하고, 양육 받는 중국의 모든 영혼 되게 하소서.

▲ 오클라호마 교도소 751명 수감자에 복음 전파…400명 회심, 41명 세례

미국 오클라호마주의 한 교도소에서 열린 복음집회에 751명의 수감자가 참석해 400명 이상이 회심하고 41명이 세례를 받았다고 CBN뉴스가 보도했다. 이번 사역은 빅토리 크리스천 센터와 담임목사 폴 도허티가 주도했으며, 당초 예상보다 훨씬 많은 인원이 모였다. 수감자들은 현장에서 따뜻한 식사와 함께 성경 700권, 성경공부 책자 1,300권을 받았다. 도허티 목사는 “강력범, 성범죄자, 마약사범 등 다양한 배경의 수감자들이 복음을 통해 변화되는 모습을 보았다”며 “감옥에 갇힌 자들도 하나님께서 여전히 그들을 사랑하신다는 것과, 하나님께서 그들의 이야기를 끝내지 않으셨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말했다. 첫 집회는 6월 23일 보울리에 있는 존 H. 릴리 교도소에서 열렸다. 한 수감자는 과거 도허티 목사의 아버지 빌리 조 도허티의 설교를 듣고 구원받았지만 범죄로 수감됐고, 그 아들의 방문이 다시 나를 찾아온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했다. 도허티는 “예수님만이 삶을 변화시키고, 마음을 치유하며 참 평안을 주실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사역은 단발성으로 끝나지 않으며, 가을과 겨울에도 사역을 이어갈 계획이다.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써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사도행전 4:11-12)

하나님, 한 교도소에서 열린 복음집회를 통해 스스로 죄악에 뮤여 찢기고 상한 마음에 찾아가 주셔서 감사드리며,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더욱 허락해 주시길 간구합니다. 성경을 읽으며 내가 얼마나 말할 수 없는 죄인인지 심령 깊이 깨닫게 하시고 그런 나를 위해 죽으신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믿어지는 은혜와 기쁨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그리하여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유일한 이름되신 예수로 거듭남을 얻은 자들이 자신과 같은 수감자들을 위한 복음 전도자로 드려져 그곳에서도 주님의 이름이 높여지게 하소서.